

# 고령화연구패널(KLoSA)

## 2007년 직업력조사 실시과정 보고

신 현 구\*

### I. 서론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이하 KLoSA로 표기)는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 고령화 과정을 정책적·학술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KLoSA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지만 제1차 기본조사와 같은 동일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본조사는 격년으로 짝수 해에 실시한다. 따라서 제2차 기본조사는 2008년에 실시되며, 2007년부터 홀수 해에는 기본조사에서 수집하지 않는 정보를 하나의 주제로 정하여 특별조사 형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6년에 실시한 제1차 기본조사를 통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6,171개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10,254명을 패널로 구축하였다. 제1차 기본조사 자료는 2007년에 가중치 산정, 데이터 클리닝, 무응답 대체 및 기본 변수 생성 등의 작업을 거쳤으며,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지, 코드북, 사용자 안내서 등과 함께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sup>1)</sup> 다만 이 자료는 관련 학술 및 정책연구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07년에는 KLoSA의 첫 특별조사로서, 패널의 15세 이후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직업력조사(work history survey)를 실시, 동년 9월부터 실사를 시작하여 2008년 1월에 종료하였다. 제1차 기본조사에서는 현재 일자리 또는 가장 최근에 했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이를 직업력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와 결합하면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어떤 이력을 거쳐 현재 일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hin@kli.re.kr).

1) www.klosa.re.kr 또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www.kli.re.kr)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

당초 2007년 조사로는 직업력조사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는 생애사조사(life history survey)를 계획했었다. 생애사조사는 직업력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력, 성장기 사회경제적 상황, 혼인·출산력, 건강 및 질병력, 사건·사고 등 생애 주된 사건들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5월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1회 면접으로 수집하기에는 설문 분량이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너무 많은 응답 부담이 직업력 정보의 신뢰성-응답자의 고의적인 응답 누락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패널의 직업력을 수집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기본적인 노동시장 이력에만 초점을 둔 설문 내용을 가지고 2007년 8월에 다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글의 목표는 2007년에 실시한 KLoSA 직업력조사 실시과정 및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직업력조사 및 조사 자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직업력조사는 상대적으로 먼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이므로,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회고적 조사(retrospective survey)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번 직업력조사에서는 “직업력 캘린더”를 면접도구로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를 제Ⅲ장에서 자세하게 소개한다. 글의 순서는 설문내용, 면접 진행방법, 면접원 교육, 그리고 실사 진행과정 및 결과 등으로 구성하였다.

## II. 설문 내용

2007년 직업력조사에서는 패널의 일자리 이력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였다. 2006년에 실시한 제1차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당시 직업을 가진 패널에게는 현재 일자리 정보를, 직업이 없었던 패널에게는 가장 최근에 일했던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이번 직업력조사의 범위는 15세 이후 했던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제1차 기본조사에서 수집한 일자리 이전까지 했던 일자리 각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다.

직업력조사 설문내용을 구성하면서 고려한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예비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설문에 응답하기에 애매한 일자리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측면에서 비롯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표준화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 예로 1년 중에도 계절별로 서로 다른 종사상 지위를 가지고 또는 여러 직종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또한 매일 매일 다른 사업장에서 일했던 일용 임금근로자에게 당시 일했던 사업장의 규모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어려움 등을 들 수 있겠다. 예비조사 결과 이런 상황에서 패널들이 응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특히 연령이 많은 패널들에게 있어 직업력조사는 평생 동안 해온 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각각의 일에 대해서 많은 분량의 정보를 묻는 것은 응답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수집한 정보가 정확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가급적 설문분량을 줄여서 응답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직업력조사에서 수집한 일자리에 대한 기본 정보는 종사상 지위, 일자리를 시작한 연령과 그 일을 그만둔 연령, 산업 대분류(일부 중분류), 사업장 규모, 직종 대분류(일부 중분류), 그리고 일을 그만둔 이유 등이다. 또한 45세 이상 일자리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을 추가하였고, 45세에 했던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업장 위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상시 임금근로의 경우 퇴직금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비임금근로의 경우 자영업 선택 이유나 무급가족종사 이유 등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모든 일자리에 대하여 동일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지 않았고 종사상 지위에 따라 설문을 달리 구성하였다. 일단 종사상 지위는 상시 임금근로, 일용 임금근로, 점포를 가진 자영업(고용주), 무점포 자영업, 농축어업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에 따라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질문 구성을 약간 달리하였는데, 예를 들어 사업장 규모는 상시 임금근로인 경우만 질문하고, 점포를 가진 자영업과 농림어업 자영업,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인 경우에는 정식으로 임금을 주고 고용한 근로자수와 무급가족종사자수를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또한 무점포 자영업과 농림어업 자영업의 경우 산업에 대한 질문 없이 직종을 통하여 산업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일을 한 기간 외에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이 때 주로 무엇을 했는지, 그 기간 동안 생계는 어떻게 영위했는지 등도 물어보았고, 혼인 및 출산력 정보와 관련하여 혼인 연령과 첫 자녀를 낳은 연령, 그리고 마지막 자녀를 낳은 연령도 질문하였다.

### III. 면접 진행방법: CAPI와 직업력 캘린더 활용

KLoSA 직업력조사는 제1차 기본조사와 마찬가지로 면접원이 패널을 방문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법(CAPI)으로 진행하였다. CAPI 프로그래밍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개발한 블레이크스(Blaise)를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패널의 응답 회피를 방지하고 과거 일자리를 기억해 내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일명 “직업력 캘린더”를 활용하였다. 직업력 캘린더는 패널이 했던 각 일자리의 시

작한 연령 및 그만둔 연령, 그리고 종사상지위 등과 같은 특징을 간략히 기록하는 기록지로서, 본격적인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를 먼저 작성하여 패널의 노동시장 이력의 큰 틀을 잡고, CAPI 면접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직업력 캘린더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캘린더는 맨 윗칸(A)에는 제1차 기본조사에서 수집한 출생년도와 조사 당시 직업 또는 최근 일자리 상황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그리고 C칸에는 각 패널의 연령에 해당하는 연도를 사전에 인쇄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난 조사에서 수집한 현직 또는 최근 일자리를 시작하거나 그만둔 기간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패널의 사전 정보만 담긴 캘린더가 패널당 하나씩 사전에 작성된다. 캘린더의 사전 정보는 면접원이 면접 과정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나가기 전에 제1차 기본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정보가 담긴 캘린더를 작성한 후 면접원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처럼 면접원은 사전에 기본 정보가 기입된 캘린더와 설문 문항이 프로그래밍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패널을 방문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결혼연령과 첫 자녀와 마지막 자녀를 낳은 연령을 표시한다. 그리고 15세 이후부터 현재 이전까지 가졌던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즉, 연령과 연도에 따라) 응답자에게 질문하여 근로기간을 나타내는 화살표와 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나타내는 숫자를 일자리/비근로 세부구분란(C)에 표시한다.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에는 주로 무엇을 했는지 - 즉 구직, 가사, 요양, 교육, 군대, 기타 등 - 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메모란에는 일을 시작한 연령과 그만둔 연령, 종사상지위 등 외에 나중에 CAPI 면접을 진행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특기 사항들을 적어두도록 하였다.<sup>2)</sup>

패널의 과거 일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캘린더 작성이 끝나면 일자리 횟수 기록란(B)에 이를 정리하여 상시 임금근로, 일용 임금근로, 점포 자영업, 무점포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등 해당 종사상 지위별로 응답자가 몇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입함으로써 캘린더 작성을 완료한 후 CAPI로 진행한다.

직업력 캘린더를 작성함으로써 회고력조사가 가진 두 가지 문제, 즉 텔레스코핑 오차(telescoping errors)와 누락 오차(omission errors)<sup>3)</sup>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본격적인 설문을 진행하기 전 직업력 캘린더를 작성하면서 응답자는 자신이 해온 과거 일을 연령순으로 되짚어봄으로써 관련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캘린더를 작성하면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을 비근로기간으로 설정하

2) 메모란에 적힌 정보들을 토대로 직산업 분류 에디터가 잘못된 분류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IV장 면접원 현황 및 교육 참조)

3) 텔레스코핑 오차(telescoping errors)란 응답자가 사건 발생 시기를 잘못 기억하여 응답하는 것을 말하며, 누락 오차(omission errors)는 발생한 사건 자체를 누락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림 1] KLoSA 2007년 직업력조사 면접도구: 직업력 캘린더

KLoSA 2007 직업력조사		직업력 캘린더																					
A	TNS ID	광역시도	면접원	중사상지위																			
	조사구	시군구	노트북 ID	산업																			
	이름	성별	현직/최근	직업																			
B	일자리 회수 기록란	근로	1. 월급 임금근로 <input type="checkbox"/> 회		2. 일당 임금근로 <input type="checkbox"/> 회		3. 점포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회		4. 무점포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회														
			5. 농·축·임·어업 <input type="checkbox"/> 회		6. 무급가족종사 <input type="checkbox"/> 회		7. 복수근로 <input type="checkbox"/> 회																
	비근로	8. 구직 <input type="checkbox"/>		9. 가사 <input type="checkbox"/>		10. 요양 <input type="checkbox"/>		11. 교육 <input type="checkbox"/>		12. 군대 <input type="checkbox"/>		13. 기타 <input type="checkbox"/>											
코드기입 방식		▶ 동일한 중사상지위내에서 일자리 변동인 경우 1-1, 1-2, ..., 2-1, 2-2, ... 식으로 구분 ▶ 비근로 표시는 15세부터 ▶ 근로 표시는 연령제한 없음																					
C	연령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년도																						
	일자리/비근로 세부 구분																						
	메모																						
	연령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년도																						
	일자리/비근로 세부 구분																						
	메모																						
	연령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년도																						
	일자리/비근로 세부 구분																						
	메모																						

고 이 기간에 주로 한 활동을 묻는 설문을 집어넣은 것도 기억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로 인해 캘린더 작성 후 진행될 CAPI 조사 설문에 보다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처음 시작한 일자리부터 자세한 정보를 묻기 위한 여러 개의 설문이 주어지게 되면 응답 부담이 가중되어 면접이 진행될수록 응답자는 스스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한 일자리나 짧게 일한 일자리는 누락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일자리수를 먼저 파악함으로써 응답자가 응답 부담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고의로 누락할 가능성을 가급적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2]는 직업력 캘린더를 작성한 예이다. 면접원은 지난 제1차 기본조사에서, 57세

[그림 2] KLoSA 2007년 직업력조사 직업력 캘린더 작성의 예

KLoSA 2007 직업력조사 직업력 캘린더

TNS ID	광역시도	서울	면접원	종사상지위	일용임금근로	
조사구	시군구		노트북 ID	산업	전문직별 공사업	
이름	성별	보자	현직/최근	최근일자리	직업	추출 및 건설기능종사자

일자리 회수 기록란	근로	1. 월급 임금근로 <input type="checkbox"/> 회	2. 일당 임금근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	3. 점포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회	4. 무점포 자영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		
		5. 농·축·임·어업 <input type="checkbox"/> 회	6. 무급가족종사 <input type="checkbox"/> 회	7. 복수근로 <input type="checkbox"/> 회			
	비근로	8. 구직 <input type="checkbox"/>	9. 가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 요양 <input type="checkbox"/>	11. 교육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 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13.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코드기입 방식	▶ 동일한 종사상지위내에서 일자리 변동인 경우 1-1, 1-2, ..., 2-1, 2-2, ... 식으로 구분 ▶ 비근로 표시는 15세부터 ▶ 근로 표시는 연령제한 없음
---------	---

연령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년도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일자리/비근로 세부 구분															11-1			5-1		
메모	11-1 10쪽 (중간관리) / 9-1 가사 (현직의무) / 결혼 3차례 / 15세																			
연령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년도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일자리/비근로 세부 구분	11-1	12-1				2-1										4-1				
메모	12-1 근대복무 / 2-1 일용임금근로 (가계 이동노동자) 서울마포구 아현동 일강 15072/A 15076 20일/월 x 8개월																			
연령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년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일자리/비근로 세부 구분					4-1											2-2				최근일자리시작
메모	4-1 무급가족종사자 가계 이동노동자 원정 32400원/월 20일/월 x 8개월 / 2-2 51세 ~ 55세 일용임금근로 가계 이동노동자와 20일/월 x 50,000원/60일																			
연령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일자리/비근로 세부 구분					최근일자리종료		2-2					13-1								
메모	13-1 비근로 (비근로) 차대 관리소득																			

연령																				
년도																				
일자리/비근로 세부 구분																				
메모																				

발송	Yes	No	면접원	A	B	C	D
----	-----	----	-----	---	---	---	---

인 1991년부터 62세인 1996년까지 일용 임금근로 형태로 추출 및 건설기능종사자로 일했다고 응답한 패널의 사전 정보가 담긴 캘린더를 가지고 직업력 캘린더 작성을 시작한

다. 면접원은 응답자에게 15세 이후 응답자가 어떤 일자리에 있었는지를 묻고 연령 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캘린더 작성 결과 일자리 횟수 기록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남성 응답자는 일용 임금근로 2차례, 무점포 자영업자로 1차례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은 군대 제대 후 25세이며, 일용 임금근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29세까지 일을 한 후에 29세부터 50세까지 점포 없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다시 51세부터 일당을 받는 일용 임금근로자로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1세, 22세, 그리고 32세에 결혼 및 자녀출산을 하였고 정보와 가사, 군대 등 비근로기간에 한 주된 활동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캘린더를 완성한 후에는 각 일자리(및 비구직기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CAPI로 수집한다. 앞서 설문내용에서 살펴보았던 산업, 직종, 규모, 일을 그만둔 이유 등에 대한 설문 등이다. 물론 캘린더를 작성하면서 기록했던 종사상 지위, 일을 시작한 연령과 그만둔 연령 등도 컴퓨터에 기록하게 된다.

[그림 3]은 CAPI를 진행하기 위한 컴퓨터의 첫 화면이다. 질문 바로 윗쪽에는 7개의 종사상 지위(및 비근로기간의 주된 활동)에 따라 해당하는 설문으로 가도록 탭이 만들

[그림 3] KLoSA 2007년 직업력조사 CAPI 설문 화면의 예

J000	<input type="checkbox"/>	J004	<input type="checkbox"/>
J001	<input type="checkbox"/>	J005	<input type="checkbox"/>
J001_1	<input type="checkbox"/>	J006	<input type="checkbox"/>
J002	<input type="checkbox"/>		
J003	<input type="checkbox"/>		

어져 있다.4) 면접원은 응답자의 일자리 순서대로 해당하는 종사상 지위의 탭을 클릭하여 면접을 진행한다. [그림 2]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보자. 이 응답자의 15세 이후 근로 관련 경험은 비록 노동시장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1년간의 교육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면접원은 먼저 교육 탭을 클릭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관련 설문을 진행한다. 해당 설문이 끝나면 다시 16세부터 시작한 ‘가사’ 탭을 클릭하여 해당 설문을 진행하고, 다시 22세부터 시작한 ‘군대’ 탭을 클릭하여 해당 설문을 진행한다. 응답자는 세 가지 유형의 비근로기간 주된 활동을 거쳐 일용 임금근로로서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였다. 이 일자리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면접원은 ‘일용’ 탭을 클릭하여 첫 일자리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다. 그리고 해당 설문이 끝나면 ‘무점포 자영업’ 탭을 클릭하여 다시 해당 설문을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캘린더에 기록한 응답자의 일자리 이력이 끝날 때까지 CAPI를 진행하는 것이다.

#### IV. 면접원 현황 및 교육

직업력조사 실사는 제1차 기본조사와 마찬가지로 TNS Korea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면접원은 모두 94명으로 이 가운데 88명은 제1차 기본조사에 참여한 면접원이었으며(직업력조사 면접원의 94%),<sup>5)</sup> KLoSA에 처음 참여한 면접원은 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면접원이 43명(46%),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담당하는 면접원이 15명(16%), 대구경북 지역을 담당하는 면접원이 11명(12%), 광주전남북 지역을 담당하는 면접원이 15명(16%), 대전충남북 지역을 담당하는 면접원이 10명(11%)이었다.

올해 처음 참여하는 면접원에게는 CAPI 기본교육 1일과 직업력조사 교육 1일 등 모두 2일간 교육을 실시하였고, 작년에 참여했던 88명의 면접원에게는 직업력조사 교육만 1일간 실시하였다. CAPI 기본교육은 KLoSA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CAPI의 개념 및 장비 소개, KLoSA CAPI 시스템 교육, 그리고 CAPI 실습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직업력

- 4) ① ‘월급’은 상시 임금근로, ② ‘일용’은 일용 임금근로, ③ ‘점포’는 점포를 가진 자영업(고용주), ④ ‘무점포’는 점포가 없는 자영업, ⑤ ‘농림어’는 농림어업 자영업, ⑥ ‘무급’은 무급가족종사, ⑦ ‘복수’는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설문으로 연결되는 탭들이다. ⑧ ‘구직~기타’는 비근로기간 주된 활동 설문으로 들어가는 탭이다.
- 5) 제1차 기본조사에 참여한 면접원은 총 107명이었고, 이 가운데 9명이 중도에 탈락하여 실사를 완료할 때까지 참여한 면접원은 98명이었다.



조사 교육은 조사 개요, 설문 이해, 일자리 구분, 직산업분류, 캘린더 작성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실습은 캘린더 작성 실습과 CAPI 실습으로 나누어졌다. 직업력조사 교육 일정표는 <표 1>과 같다.

제1차 기본조사의 경우 패널 일자리의 산업과 직업 관련 정보는 사업장명과 사업장이 하는 일, 그리고 응답자가 하는 일과 직위 등을 주관식으로 기록하게 한 후에 실사 종료 후 통계청 직산업분류 업무 경험자에게 위탁하여 별도로 분류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경우 개인당 2개 정도의 직산업 코드를 분류하여 입력하면 되었다. 그러나 직업력조사에서 평생 동안 개인이 가진 일자리에 대한 직산업 관련 정보들을 주관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설문 문항도 늘어나고 면접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이를 재분류하여 별도로 코딩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작업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조사에서는 직산업 관련 문항을 주관식에서 대분류(일부 중분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면접원 교육을 직산업 분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후에는 테스트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미만을 받은 면접원들은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별도의 교육(3시간)을 실시한 후 다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표 1> KLoSA 2007년 직업력조사 교육 일정표

시 간	교육 내용	세부 내용	비 고
10:00 ~ 10:20	조사 개요 소개	- 교육 일정 및 내용 소개 - 2007 직업력조사 개요 - 2차 예비조사 결과 소개	통합교육
10:30 ~ 11:00	설문 이해	- 설문구조 이해 - 설문내용 익히기	통합교육
11:00 ~ 11:10	휴식		
11:10 ~ 12:20	직산업분류 이해	- 종사상 지위 구분 - 산업분류 이해 - 직업분류 이해	통합교육
12:20 ~ 13:20	식사		
13:20 ~ 13:50	일자리 구분 이해	- 직업력조사 일자리 구분 이해	통합교육
13:50 ~ 14:20	테스트	- 직산업분류 이해도 측정	통합교육
14:20 ~ 14:30	휴식		
14:30 ~ 15:30	캘린더 작성법 이해	- 직업력 캘린더 소개 - 캘린더 작성법 이해 - 캘린더 사례 소개	분반교육
15:30 ~ 15:40	휴식		
15:40 ~ 18:00	실습	- 캘린더 그리기 실습 - CAPI 실습 - 직산업분류 이해도 측정 리뷰 - 질의응답 및 교육 마무리	분반교육

이와 함께 면접원이 직산업 코드를 잘못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입력 코드를 검토할 직산업분류 에디터를 지역사무소별로 고용하였다. 면접원이 직업력 캘린더를 작성할 때 메모란에 가급적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 직산업분류 에디터가 캘린더 내용과 CAPI 입력 코드를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직산업분류 에디터 6명에 대한 교육을 서울에서 2일간(10월 10~11일) 실시하였다.

직업력조사 면접원 교육은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에서 실시하였다. 새로 참여하는 면접원은 CAPI 기본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에 기존의 면접원들과 함께 직업력조사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먼저 작년 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사무소 소속 면접원을 대상으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직업력조사 교육을 3차례 실시하였다. 8월 30일에는 서울에서 지방사무소 소속 면접원 가운데 KLoSA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면접원을 대상으로 CAPI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을 포함하여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역에서 각 지역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력조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9월 10일 서울사무소 소속 신규 면접원을 대상으로 CAPI 기본교육을, 11일에는 다시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력조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 V. 실사 진행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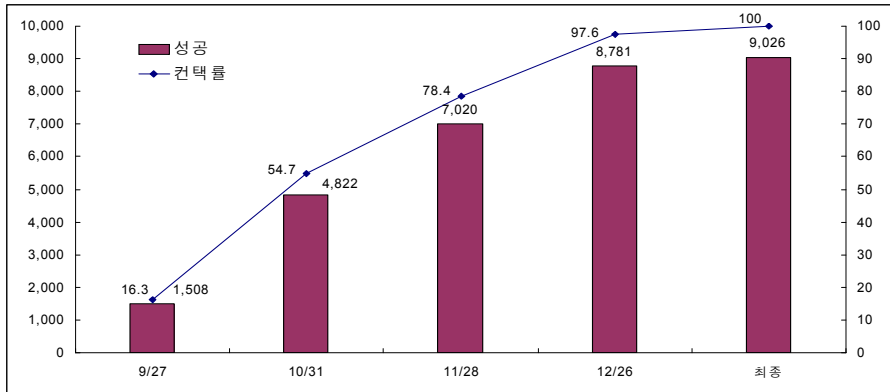
직업력조사 실사는 면접원 교육이 끝난 직후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본격적인 실사 진행은 전체적으로 면접원 교육이 끝난 9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직산업 분류 재교육 면접원은 10월부터 본격적인 면접조사를 시작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당초 예정대로 12월 31일에 실사를 완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진행이 더디어 2008년 1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다. 9월은 약 1,500명 정도, 10월은 약 3,300명, 11월은 약 2,200명, 12월은 약 1,800명, 그리고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2008년 1월은 약 250명 정도의 면접 실적을 기록하였다.

직업력조사 결과 제1차 기본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10,254명 가운데 모두 9,026명 패널들에 대한 직업력 정보를 수집하였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패널은 1,228명이었다. 따라서 응답률은 88%, 미응답률은 12%이다. 응답하지 않은 1,228명 가운데 사망자(120명)와 해외이민(6명)을 제외한 응답률은 89%로 나타났다.

<표 2>는 지역별 실사 결과 및 미조사 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미조사 사유를 살

해보면 조사 거절이 5.9%, 추적 실패가 3.3%로 나타났다. 조사 거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8.8%)과 서울(8.3%)이었고, 추적 실패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6.1%)와 서울(6.0%)였다. 지역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광역시에 비하여 도 지역에서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이 95%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81%로 가장 낮았다. 충남북, 전남북, 경남

[그림 4] KLoSA 2007년 직업력조사 실시 진행과정



<표 2> KLoSA 2007년 직업력조사 지역별 실시 결과

(단위: 명, %)

	패널수	성공률	사망	해외이민	입원	조사거절	부재중	추적실패	사망/이민 제외 성공률
전체	10,254	88.0	1.2	0.1	0.5	5.9	1.0	3.3	89.1
서울	1,760	83.2	1.0	0.2	0.2	8.3	1.0	6.0	84.3
부산	745	89.0	1.1	0.0	0.8	6.3	1.1	1.7	90.0
대구	561	88.9	1.1	0.0	0.9	6.8	1.4	0.9	89.9
인천	557	81.3	1.1	0.0	1.1	8.8	3.8	3.9	82.2
광주	401	92.8	0.7	0.0	0.2	4.5	0.7	1.0	93.5
대전	388	88.9	1.8	0.5	0.0	5.4	0.0	3.4	91.0
울산	318	89.3	0.3	0.0	0.9	5.7	0.3	3.5	89.6
경기	1,934	84.3	1.1	0.0	0.4	6.6	1.5	6.1	85.3
강원	395	89.9	0.8	0.0	0.0	7.1	1.3	1.0	90.6
충북	392	94.1	1.0	0.0	0.0	2.8	0.3	1.8	95.1
충남	560	92.0	2.1	0.0	0.4	3.4	0.2	2.0	94.0
전북	488	95.3	1.4	0.0	0.8	1.8	0.2	0.4	96.7
전남	479	94.2	1.5	0.0	1.3	2.9	0.0	0.2	95.6
경북	602	91.9	1.7	0.0	0.7	3.5	0.7	1.7	93.4
경남	674	89.9	1.0	0.0	0.4	6.2	1.0	1.3	90.9

복이 모두 90% 이상 응답률을 보였고,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I. 맺음말

이상으로 2007년에 실시한 KLoSA 직업력조사의 실사 진행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직업력조사 자료는 설문지, 코드북 등 관련 문서와 함께 2008년 중에 데이터 클리닝과 가중치 작업, 변수 생성 등의 작업을 거쳐서 제1차 기본조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포할 것이다.

이렇게 작업된 직업력조사 자료는 2006년에 제1차 기본조사에서 수집한 현재 일자리 또는 가장 최근 일자리 정보와 결합하여 중고령자가 어떤 이력을 거쳐 노동시장에서 현재 일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동학이 매우 중요한 시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어떤 노동시장 이력을 가진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더 남아있는지 아니면 더 빨리 퇴장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직업력조사 자료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8년 KLoSA 조사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밝혀둔다. 글의 첫머리에서 밝혔듯이 2008년 조사는 2006년 제1차 기본조사에 이은 제2차 기본조사이다. 따라서 조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1차 기본조사와 동일하다. 가급적 상반기 중에 실사를 시작할 것을 목표로 현재 CAPI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LI**